

“전국 유일 녹차해수탕에서 추운 겨울 제대로 즐기세요”

◇겨울철 최고의 힐링공간 '울포 해수녹차센터' = 비봉 공룡공원에서 득량만을 원편에 끼고 울포로 향한다.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들녘은 짙은 초록빛 같다. 쪽파가 넓은 면적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왼편 득량만 바다에 멀리 고흡반도를 배경으로 수많은 어선들이 그림처럼 정박해 있다.

울포 솔밭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두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고 있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포토 핫 플레이스'다. 기존 노후한 '울포 해수녹차탕'을 대신해 지난 2018년 9월에 새롭게 개장한 '울포 해수녹차센터'는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종합 힐링 센터다. 단순하게 몸의 때를 씻기는 목욕문화에서 탈피해 건강과 치유기능을 갖춘 힐링공간으로 차별화했다. 지하 120m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해수와 녹차가 어우러지는 전국 유일의 녹차해수탕이다.



1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있는 울포해수욕장에 설치된 '하트' 손모양 조형물.
2 한겨울에도 산다화 등 다채로운 난대수종을 볼 수 있는 보성 '초암정원'.
3 건강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울포 해수녹차센터'.

지상 3층(연면적 4424㎡) 규모로, 1층에 카페테리아와 특산품 판매장, 2층에 남녀 해수녹차탕(650명 동시 수용)이 들어섰다. 3층은 야외 노천탕과 족욕탕이 자리하고 있다. 운이 좋다면 눈을 맞으면서 따끈따끈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3층 야외 시설은 반드시 수영복(대여비 2000원)을 착용해야 한다. 마사지 전문시설인 '아쿠아노아'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풀기에 제격이다. 이 밖에도 황옥방과 스톤테라피, 황토방 등 '치유의방'도 색다르다.

해변 하트조형물 '포토 핫 플레이스' 숲속 힐링공간 '제암산 자연휴양림'

'울포해수녹차센터' 전국 관광객 인기 건강 치유기능 갖춘 공간으로 차별화

어머니 떠올리며 가꾼 '초암정원'

260년 고택 호남 정신문화 공간

보성군이 운영하는 해수 녹차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누적 이용객이 20만1000여명을 돌파했다. 입욕비는 일반 7000원, 군민·자매결연 단체 6000원이다. 2019년 1월에 전남도가 추천하는 여행지에 선정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스파명소로 소개된 바 있다. (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21)

◇'그린 에너지' 선사하는 제암산 자연휴양림 = 보성군이 직영하는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보성9경(景) 가운데 6경이다. 높이 807m의 제암산은 정상 바위를 향해 주위바위들이 엮인 형상을 하고 있어 '임금(南)바위(岩)산'으로 불린다.

또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에코 어드벤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무와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해 만든 자연친화적인 '모험 시설'과 스피드를 즐기는 '짚 라인', 무동력 미끄럼틀 '마운틴 슬라이드'이다. 그래서 '놀이숲'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2018 '한국관광의 별'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1월초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 코리아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30선(選)'에 이름을 올렸다. (보성군 용지면 대산길 330)

1996년 2월 개장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160ha 면적에 야영장과 함께 숲속의 집(24동), 현대식 콘도형태의 제암휴양관(객실 11실), 숲속 휴양관(12실)을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수용인원은 3000명이다. 특히 빼어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휴양과 치유는 물론 체험(모험), 교육을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 휴양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효심으로 나무 심고 가꾼 '초암(草岩)정원' = 보성군민들이 녹차 밭과 함께 꼭 봐야 할 곳으로 손꼽는 곳이 '초암정원'이다. 득량면 오봉리 강골마을 열화정(悅華亭·중요 민속문화재 162호)은 고즈넉하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인지라 낙엽이 지고, 연못물도 말라있다. '초암정원'은 강골마을에서 800여m 거리. '초암정원'은 정암(靑巖) 김재기(80·전 광주은행 상임감사)씨가 평생에 걸쳐 가꾼 개인정원으로,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초암마을에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전남도 '민간정원 제3호'로 등록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초암산 남쪽 산자락 4만7000여㎡ 면적에 호랑가시나무와 종려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대나무 등 200여종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2019년 1월 초, 보성군에서 주최한 '2019 코리아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30선(選)'에 이름을 올렸다. (보성군 용지면 대산길 330)

무(無)정에 테크로드인 '더늬길'은 보행약자도 애로를 겪지 않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5.8km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에서 수변관찰 테크로드를 따라 새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을 걷는 코스(1.5km·30분 소요)는 생기 넘치는 '그린 에너지'를 선물한다.

마삭줄로 꾸며진 대문에 들어서면 별천지가 펼쳐진다. 계단길 양옆으로 붉은 꽃을 피운 산다화(山茶花)와 호랑가시나무, 향나무, 감나무가 차례로 눈에 들어온다. 안채 주위에는 80년생 향나무와 200년 이상된 '오래감', 250~300년생 모과나무 등 자칫 지나치기 쉬운 고목들이 많다.

그는 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새 어머니를 맞았다. 18살 때 고향을 떠나 전남대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며 문득 2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날아주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깝고, 한없이 그리워 묘소 주위에 '색다른' 나무를 구해 한그루한그루 심기 시작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고향에서 보기 어려운 난대수종이었다. 그렇지만 나무특성을 잘 몰라 고사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한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어머니'가 노년에 농사 짓지 말고 편히 계시라는 의미에서 밭에도 나무를 심었다. '은행 임원이면서도 골프채 한번 잡지 않고' 매년 100그루씩 편백나무를 구입해 산비탈에 심었다. 처음부터 유원지나 관광지, 숲정원을 꾸밀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두 분 어머니를 위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효심(孝心)'에서 하나둘 심기 시작한 나무들은 60여년이 흘러 울창한 숲을 이뤘다.

"나무 하나하나마다 애투하고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60년간 저와 교감하고, 대화를 하며 큰 나무



들입니다."

초암정원은 봄에 매화와 산수유, 여름에 편백과 대나무숲, 가을에 금목서와 은목서, 겨울에 산다화 등 사계절 장관을 이룬다. 겨울에 접어들어 요즘 정원은 '애기동백'으로도 불리는 산다화가 한창이다. 겹꽃 또는 홑꽃, 붉은 색, 분홍 색, 하얀 색... 모두 6종이 있다고 한다. 소나무류도 철갑송과 반송, 대왕소나무, 백송, 금송 등 다양하다.

종려나무길을 지나 소나무가 도열한 '나무가 인사하는 길'을 따라가면 분봉을 얹고 평장(平杖)을 한 선영묘소가 나온다. 편백나무숲 탐방로 입구에는 '그리운 누이 표지석'이 놓여있다. '날개한번 못 펴보고' 2살 때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스토리에 방문자의 웃음을 여미게 한다. 편백나무와 대나무숲 사이를 걷는 산책로는 '초암정원' 최고의 힐링 코스다. 초암정(섬터정자)에 오르면 예당평야와 득량만이 시원스레 눈앞에 펼쳐진다.

한편 초암정원은 관광지인 문수공파 23대손 김선봉 선생이 자손을 많이 볼 수 있는 '뜻뜻한'(따뜻한) 터를 찾아 장흥 땅에서 보성으로 옮겨 오면서 살았던 곳이다. 김 씨는 선생의 8대 종손으로 슬하



에 2남3녀를 뒀다. 안채는 지어진지 260여년된 고택이다. 또한 김 씨의 할아버지가 거쳐했던 사랑채는 '신필'(神筆)로 불린 서예가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보성)를 비롯해 한학자인 효당(曉堂) 김문욱과 아들 백강 김호(化松), 고당(顧堂) 김규태(圭태) 등 당대의 이름난 명망가들이 즐겨 찾았던 호남 정신문화 공간이었다. (보성군 득량면 초암길 50-5·입장료 5000원)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보성=김용백 기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티미널빌) 미세먼지 격정독!! ☎061)333-4514, 010-3620-7268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우 분위기 ☎ 010-8005-018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수전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한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